주·야간보호센터 061)394-0123
신세계요양원
061-395-2580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영천리 1493-5)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367호 (음력 6월 7일) 2022년 7월 5일 화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이른 폭염에 예비 전력 '아슬아슬'…자칫하면 전력대란

6월 평균 최대 전력 7.2만㎿…동월 기준 최고치
8월 최저 예비력 5.2GW 전망…경보 발령될수도
정부, 전력수급 대책기간 '총력 관리' 태세 갖춰

올여름 이른 더위가 찾아오며 지난달 전력 수요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냉방기기 사용 등으로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나는 7~8월에는 전력 수급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평균 최대 전력은 1년 전보다 4.3% 늘어난 7만1805메가와트(㎿)로 집계됐다. 최대전력은 일정한 기간의 시간대별 평균전력 가운데 최대인 값을 의미한다. 즉, 월평균 최대 전력은 1개월 동안 일별 최대 전력의 평균값을 말하며 이 값이 늘었다는 것은 전력 수요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지난달 월평균 최대 전력은 관련 통계가 매월 집계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6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이는 올해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등으로 서비스업 등 전력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른 폭염에 9년 만의 '전력수급 경보' 발령 가능성

6월 월평균 최대 전력은 지난 2008년(5만567㎿) 처음 5만㎿ 선을 넘었고, 4년 만인 2012년(6만1947㎿)에 처음 6만㎿대에 진입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7만㎿ 선을 웃돌았다. 아울러 지난달 전력 수요가 늘며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유 전력을 뜻하는 공급 예비력이 1만㎿ 선을 밑도는 날도 5일이나 됐다.

지난달 23일에는 공급 예비율이 한때 9.5%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통상 발전기 고장 등 비상 상황까지 대비하려면 예비력은 10GW, 예비율은 10%는 넘겨야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도 피크 예상 시간대(오후 4~5시)의 공급 예비력은 7453MW, 예비율은 8%까지 내려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7~8월에는 약 9년 만에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진다. 앞서 산업부는 올여름 피크 시기인 8월 둘째 주의 최저 예비력은 5년래 최저 수준인 5.2기가와트(GW)일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급 폭염이었던 2018년 여름철 최저 예비력은 7.1GW, 이듬해인 2019년에는 6.1GW를 기록했고, 2020년(8.9GW), 2021년(9.6GW)에는 8GW~9GW대로 늘었다. 예비력이 5.5GW 이하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경보 '준비'가 발령되고, 이보다 더 내려가면 '관심'(4.5GW 미만)·'주의'(3.5GW 미만)·'경계'(2.5GW 미만)·'심각'(1.5GW 미만) 순으로 경보 수위가 높아진다.

산업부 전망대로면 피크 시기에는 전력수급 경보 '준비'가 발령된다. 정부는 전력수급 비상 단계 중 '경계' 단계부터는 긴급 절전 수요 조정 등으로 대응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일부 지역에 강제로 전력을 끊는 '순환단전'에 돌입한다. 순환단전은 전력 공급이 중단돼 복구가 불가능한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전력수급 경보는 지난 2013년 8월 중순 예비율이 3.2%까지 떨어져 '주의' 경보가 발령된 이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

◆정부, 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총력 태세 돌입

올여름은 벌써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불볕더위가 시작돼 전력 수요가 갑자기 급증할 수 있어 정부도 바짝 긴장한 상황이다.

올여름 피크 시기인 8월 둘째 주의 공급 능력은 100.9GW 수준으로 지난해(100.7GW)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때 최대 전력 수요는 91.7기가와트(GW)~95.7GW 수준으로, 지난해 여름 전력 피크일인 7월 27일 기록한 91.1GW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만약 피크 시기에 95.7GW의 전력을 쓴다면 예비 전력은 5GW를 겨우 넘기는 수준인 셈이다.

이처럼 전력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7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수급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총 9.2GW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는 등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추가 예비 자원은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않고, 예비력이 일정 기준 이하 하락이 예상되면 동원한다.

아울러 예비력이 전망치를 밑돌면 현재 시험 가동 중인 신한울 1호기까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80개 공공기관의 실내 적정 온도 준수 등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전력 수급 위기 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추가 절전에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발전·송배전 설비, 태풍 등 재난에 취약한 설비도 사전 점검해 여름철 불시 고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승호 기자

장마철 폭우 쏟아졌지만 댐 12곳은 아직도 "가뭄 걱정"

홍수기(6월21일~9월20일)에 접어든 이후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일부 지역 댐은 가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오후 9시 기준으로 낙동강수계 다목적댐 2곳(안동댐·임하댐) 및 용수전용댐 1곳(영천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고 4일 밝혔다.

댐 가뭄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환경부가 가뭄 단계로 관리하는 댐은 9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났다. 이 중 '심각'(운문댐)과 '경계'(보령댐)는 각 1곳씩이고, '주의' 단계는 밀양댐·평림댐 등 2곳이다. 소양강댐·충주댐·횡성댐·주암댐·수어댐·안동댐·임하댐·영천댐 등 8곳은 '관심' 단계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양제 저수지 연계운영과 함께 하천유지용수 감량을 병행해 용수 비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부 댐의 경우 최근 내린 비로 저수 상황이 호전됐지만, 기존 가뭄 단계를 유지하면서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복지수장' 연속 낙마…방역·연금개혁 어디로?

부처 리더십 공백 장기화 불가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부처 리더십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4일 김 전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오늘(4일)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명된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모두 임명도 전에 중도하차했다. 앞서 정호영 전 후보자는 자녀의 의과대학 입학 과정에서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5월에 물러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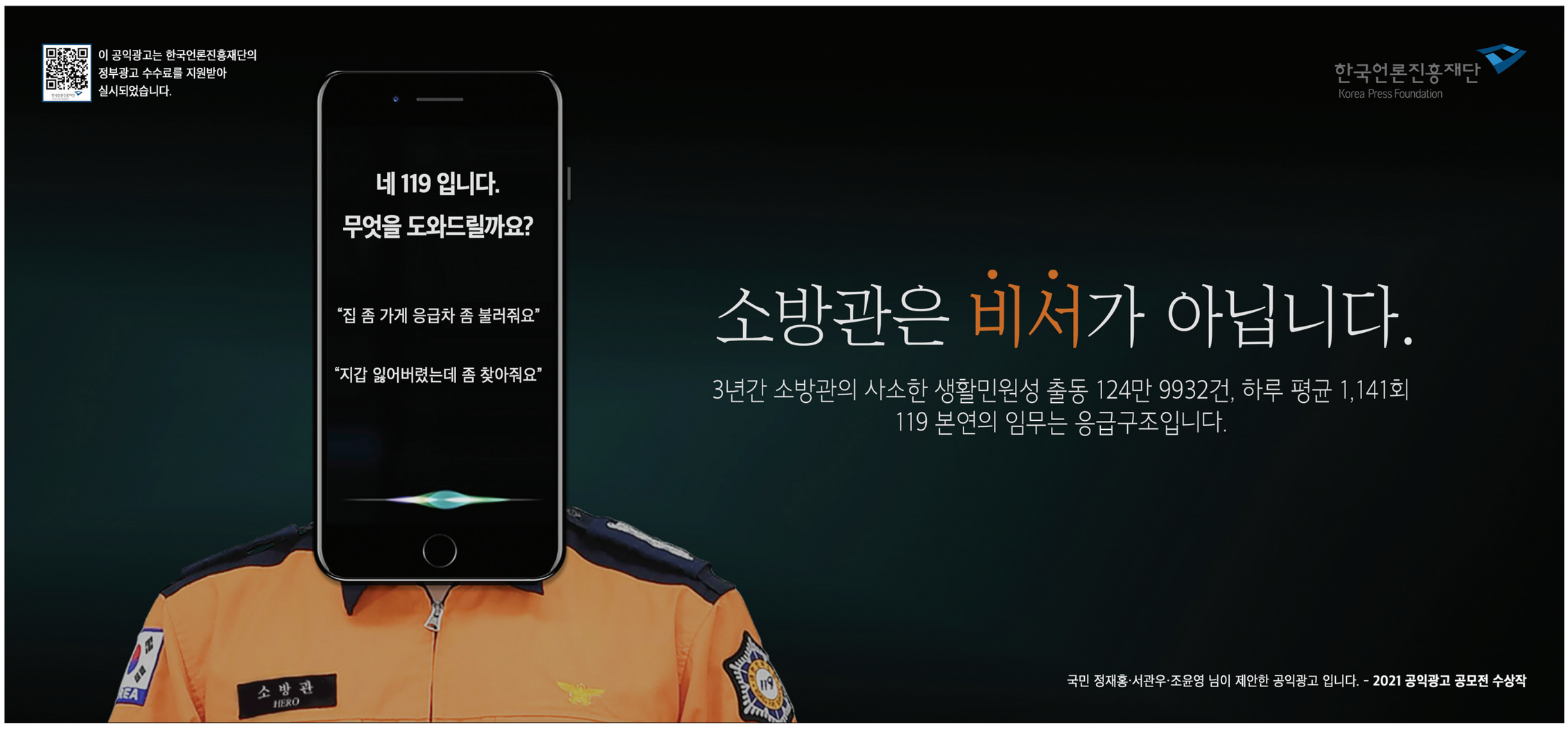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권덕철 전 장관이 지난 5월 사표를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약 두 달째 공석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의 과제는 산적한 상태다.

우선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도 공석으로, 현재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임시로 대신하고 있다.

여기에 원숭이두창도 국내에 유입되면서 확산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담당 실무자들이 진행하더라도,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 정책 분야는 장관이 없으면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던 건강보험 정책, 아직 논의 시작조차 못한 연금 제도 개혁 방안 등도 장관이 없으면 공전할 수밖에 없다.

출근길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맞물린 장애인 정책, 저출산으로 중요성이 도드라지는 인구정책,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할 노인 정책과 보육 정책 등도 시급하다.

김재환 기자